

대상화이론에 근거한 여대생의 섭식장애증상 경로모형 분석

이은주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nalysis of Path Model Based on Objectification Theory for College Women's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Lee, Eun-Jo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tness of a path model based on the objectification theory and to expand it by including the new variables to expla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D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444 college women.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self-objectification (SO), social physique anxiety (SPA) and EDS as the original variables in the objectification theory, and influence of mass media (IMM) and sex-role attitude (SRA) as the new variables. Data was analyzed by SPSS/WIN 12.0 and Amos 5.0 programs. **Results:** IMM and SRA showed direct effect on SO. IMM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PA and EDS. SRA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EDS, but only indirect effect on SPA. SO and SPA influenced EDS directly, and SO influenced indirectly EDS. **Conclusion:** Path analyses indicated support for the original theory and the expanded theory. It is necessary for repeated studies including various age groups of women to cla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objectification theory to Korean women's eating disorders. And it were recommended that we should promote womens' criticism of the image and message about the perfect female body presented in the mass media, and to highlight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ality to women's eating disorders in health education.

Key Words : Objectification, College wome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Mass media, Sex role attitud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섭식장애는 정신질환 중 가장 사망률이 높고 치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Gerber, 2005),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여성건강문제이다. 1990년의 연구(Hahn et al., 1990)에서 대상 여대생의 0.7%가 신경성 식욕부진, 0.8%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3년(Lee, Kim, Chun, & Han, 2003)과 2007년(Choi & Cheon, 2007)의 조

사에서는 섭식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여대생의 비율이 각각 5.9%와 12.6%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이 진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여대생의 섭식장애 증가를 암시하고, 또 이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새롭고 다양한 중재 개발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 Fredrickson & Roberts, 1997)은 섭식장애를 비롯한 몇몇 정신건강문제가 소녀와 젊은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대상화 이론은 서구 심리학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한국에서도 섭식장애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공할 수

주요어 : 대상화, 여자대학생, 섭식장애증상, 대중매체, 성역할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Joo, Departmen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66 Jejudaeakno, Jeju 690-756, Korea, Tel: 82-64-754-3881, Fax: 82-64-702-2686, E-mail: flym2m@jejunu.ac.kr

투고일: 2010년 1월 7일 / 1차심사완료일: 2010년 2월 16일, 2차심사완료일: 2010년 3월 2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3일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이론이다(Son, 2006). 대상화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 서구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날씬한 여성이 이상적'이라는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재화한다.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성은 일상에서 자신의 몸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게 된다. 이러한 점검과 감시의 과정에서 여성이 관찰자 혹은 제 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라고 한다.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신체감시에 동반되는 자기대상화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신체수치심(body shame)을 느끼거나,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체불안(physical anxiety)을 느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 수치심, 혹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은 섭식을 통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섭식장애로까지 진전되게 된다.

대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자기대상화, 신체수치심과 신체불안, 그리고 섭식장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Noll과 Fredrickson (1998)은 여대생 표본에서 신체수치심이 자기대상화와 섭식장애의 정적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며, 자기대상화는 또 섭식장애와 직접인 정적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Tiggemann과 Slater (2001)는 이전에 발레를 배웠던 성인여성들과 배우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대상화와 자기감시, 신체수치심, 섭식장애를 비교하고, 발레를 배운 성인여성들에서 이 점수들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이 두 표본들에서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는 Noll과 Fredrickson (199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Slater와 Tiggemann (2002)은 여고생들에서 신체수치심과 신체불안이 자기대상화와 섭식장애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대생 표본에 대한 연구에서 Calogero (2009)는 자기대상화와 신체감시에서 섭식장애로 가는 경로를 신체수치심이 완전히 매개하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Fredrickson과 Roberts (1997)는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일상적으로 만연한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 경험 때문이라고 보지만, 그들의 이론에서 성적 대상화를 단지 "주어진" 것으로 취급할 뿐, 그들의 이론 내에서 공식화하지 않는다. 이성애 사회에서 생식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신체 혹은 신체의 일부분, 성적 기능체로 보여 지고 평가되는 성적 대상화를 경험한다. 이때의 대상화는 개인을 신체로, 특히

다른 사람의 사용과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신체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Fredrickson, Roberts, Noll, Quinn, & Twenge, 1998).

대상화 이론에 성적 대상화를 자기대상화의 선행변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고, 중재할 수 있는 지점을 늘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rry와 Staska (2001)는 성적 대상화 경험의 특이적 유형으로 잡지소비라는 변인을, 그리고 Moradi, Dirks와 Matteson (2005)은 일상생활에서의 성적 대상화의 경험 자체를 추가하여 대상화 이론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의 특이적 변인으로 대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를 포함하고자 한다. 대중매체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Gerber, 2005). 특히 '체중조절이나 몸매 가꾸기'에 대한 대중매체의 묘사는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여성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신체와 신체의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 특이적인 것일 수 있다(Lee, 2009). 날로 확대되는 대중매체 영향력(influence of mass media)을 고려한다면, 변화한 매체 환경을 반영하여, 이 변인이 자기대상화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는 이 개념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과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 선택되었다.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여성의 역할은 출산과 양육, 가사이며, 남성의 역할은 여성과 다른 가족을 부양하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때 여성의 성역할은 가부장적 이성애 사회에서 생식적으로 성숙한 여성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 즉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선에 근거하여(Fredrickson & Roberts, 1997) 배정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이러한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대상화 이론에서 성적 대상화의 경험으로 자기대상화와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상화 이론에서는 여성이 생식이 가능한 기간 동안 대상화의 타깃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이 이전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사회문화적으로 생식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의 섭식장애증상에 대한 대상화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자기대상화의 선행변인으로 대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를 포함함으로써 이 이론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예방대책과 중재법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여대생들의 섭식장애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 고유의 변인들과 새로이 추가된 변인들로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한국 여대생의 섭식장애에 대한 대상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화 이론의 기존 변인과 새로운 변인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확인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상화 이론의 틀에 따라 여대생의 섭식장애증상에 대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만들고, 적합도를 검증한다.

셋째, 여대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다.

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가능 범위 1~25).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 .94$, 노출도와 관심도는 각각 .88과 .91이었다.

2)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 SRA)

Jeong(1983)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성과 남성의 가정역할(7문항), 여성의 직업역할(7문항) 그리고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7문항)으로 구성된 21문항, 5점 척도(범위 21~105)이다. 성역할 태도 점수는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현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하부척도는 .80~.83이었다.

3)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 SO)

자기대상화는 Fredrickson 등(1998)의 도구(Self-Objectification Questionnaire)를 연구자가 변안한 것으로 사정하였다. 응답자는 10개의 신체적 속성에 대해 각 속성이 자신의 신체적 자아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에 9점 가장 덜 중요한 것에 0점 등, 중요한 순서대로 9점에서 0점까지의 등급점수를 준다. 열거된 신체적 속성 10개 중 5개는 신체적 외모(신체적 매력, 체중, 성적 매력, 계측치, 조각 같은 근육), 그리고 다른 5개의 신체적 속성은 신체적 능력(신체적 조화, 건강, 힘, 에너지 수준, 신체적성)을 포함한다. 자기대상화 점수는 외모 등급점수의 합에서 능력 등급점수의 합을 빼서 계산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5점에서 25점이며, 이 점수가 클수록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Fredrickson et al., 1998).

4) 사회적 체격불안(social physique anxiety, SPA)

Hart, Leary와 Rejeski(1989)가 개발하고, Lee(2008)가 변안한 사회적 체격불안 도구(12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체격에 관해 실제로 있거나 예상되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경험하는 불안(Hart et al., 1989)을 측정한다.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체격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5) 섭식장애증상(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DS)

섭식장애증상은 Lee(1993)가 변안한 Eating Attitudes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여대생들의 섭식장애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한국 여대생의 섭식장애에 대한 대상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사정하고자 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도구

1) 대중매체 영향력(influences of mass media, IMM)

인터넷의 발달, 홈쇼핑 잡지와 채널 등장과 같은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Shin (1997)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체중조절이나 몸매 가꾸기'를 다루는 광고(신문, 인터넷, TV, 홈쇼핑 책자 등), 신문(기사), 인터넷(기사,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TV 프로그램(교양, 뉴스, 쇼, 프로그램), 잡지(패션, 미용, 여성잡지), 비디오에 대해 각각을 보는 정도(노출도)와 관심 정도(관심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한 매체의 노출도(5점 척도)와 관심도(5점 척도)를 구하고, 두 점수를 종합하여(노출도 x 관심도) 그 매체의 영향력(25점 척도)을 산출하였다. 매체의 영향력을 산출하는 이 방법은 어떤 매체를 자주 접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심이 많다면 그 매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hin, 1997). 대중매체 영향력은 6개 대중매체 영향력 평균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

Test-26 (EAT-26)으로 사정하였다. EAT-26의 원래 채점 방식은 항상, 매우 자주, 자주라는 응답에 대해 각각 3, 2, 1점을 주고, 나머지 세 가지 응답(가끔, 거의 그렇지 않은, 전혀 그렇지 않은)에는 0점을 주며, 문항의 총점이 20점 이상일 때 섭식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채점 방식은 점수가 고도로 편도되어서 분석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을 가려 버릴 수 있다는 Moradi 등(2005)과 Slater와 Tiggemann (2002)의 권고에 따라 6점 척도로 채점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6~156점이다. 이 채점방식을 적용한 EAT-26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의 2개 대학 여학생들이었다.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승낙을 받은 교수들의 수업시간 말미에, 연구자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물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응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설문지는 밀봉할 수 있는 봉투와 함께 주고, 밀봉한 봉투에 넣은 채로 돌려받았다. 2009년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495부를 배포하여 478부(96.6%)를 수거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18-24세 대상자만 포함시키고,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거하여, 444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도구 신뢰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고,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여대생들의 섭식장애증상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WIN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모형 평가를 위해 절대부합지수로는 χ^2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그리고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를 계산하였다. 증분부합지수로는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와 비표준적합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를 구하였다. 모형 구조경로의 유효성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서술적 통계

연구대상자 444명 중에 1학년 115명(25.9%), 2학년 155명(34.9%), 3학년 128명(28.8%), 그리고 4학년이 46명(10.4%)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44 ± 1.47 세, 평균 체중은 53.64 ± 7.5 kg, 평균 신장은 160.83 ± 4.9 cm이었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계수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자기대상화 수준($M = -5.26, SD = 9.72$)은 대상자들이 신체적 외모보다 신체적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적 대상화의 지표변인으로 추가된 대중매체 영향력은 자기대상화($r = .13, p < .01$), 사회적 체격불안 ($r = .26, p < .001$), 섭식장애($r = .39, p < .001$)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역할 태도는 자기대상화($r = .16, p < .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444)

Variables	IMM	SRA	SO	SPA	M±SD	Possible range
	r	r	r	r		
IMM	-				6.96±4.42	1~25
SRA	.02	-			31.57±10.72	21~105
SO	.13**	.16**	-		-5.26±9.03	-25~25
SPA	.26***	.06	.20***	-	38.67±7.20	12~60
EDS	.39***	.16**	.23***	.41***	64.32±15.79	26~156

IMM=influence of mass media; SRA=sex-role attitude; SO=self-objectification; SPA=social physical anxiety; EDS=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 $p < .05$, ** $p < .01$, *** $p < .001$.

섭식장애($r=.16, p<.01$)와, 그리고 자기대상화는 사회적 체격불안($r=.20, p<.05$), 섭식장애($r=.23,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체격불안은 섭식장애($r=.41, p<.05$)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역할 태도는 대중매체 영향력과 사회적 체격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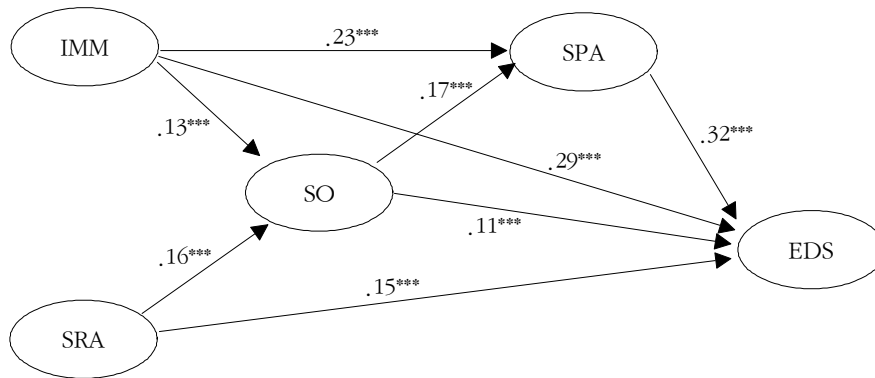
대상화 이론에서 제시된 경로와, 그리고 추가된 새로운 변인의 경우,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은 선행변인(대중매체 영향력, 성역할 태도, 자기 대상화), 매개변인(사회적 체격불안) 그리고 결과변인(섭식장애증상)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설적 모형의 실제 자료와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χ^2 는 3.67, 자유도는 2, $p>.05$ 로, Carmins와 McIver (1981)의 기준($\chi^2/df \leq 2\sim 3$)을 충족하였다.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04; 기준 $<.05$), 기초적합지수(GFI=.98; 기준 $\geq .90$), 조정적합지수(AGFI=.91; 기준 $\geq .90$)는 물론, 충분부합지수인 표준적합지수(NFI=.98; 기준 $\geq .90$), 비표준적합지수(NNFI=.94; 기

준 $\geq .90$)도 가설적 모형이 실제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로 추정치의 값을 보면 섭식장애 증상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대중매체 영향력($\beta=.29, p<.001$), 성역할 태도($\beta=.15, p<.001$), 자기 대상화($\beta=.11, p<.05$), 그리고 사회적 체격불안($\beta=.32, p<.001$)에서 오는 것이었다. 사회적 체격불안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대중매체 영향력($\beta=.23, p<.001$)과 자기대상화($\beta=.17, p<.001$)였으며, 자기대상화에는 대중매체 영향력($\beta=.13, p<.01$)과 성역할 고정관념($\beta=.16, p<.001$)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 가설적 경로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경로모형의 각 변인 간의 효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대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는 각각 자기대상화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 변인의 변량 4.0%를 설명하였다. 자기대상화는 사회적 체격불안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매체 영향력은 사회적 체격불안에 직접, 간접 효과를 보였으며,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체격불안에 간접 효과만 있었다. 대



IMM=influence of mass media; SRA=sex-role attitude; SO=self-objectification; SPA=social physical anxiety; EDS=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 $p<.05$, ** $p<.01$, *** $p<.001$.

Figure 1. Hypothetical model.

Table 2. Model Fitness Index for Hypothetical Model

Variables	χ^2	df	p	χ^2/df	GFI	AGFI	NFI	NNFI	RMSEA
Value	3.67	2	.159	1.84	.98	.91	.98	.94	.04
Evaluation criteria			$>.05$	$\leq 2\sim 3$	$\geq .90$	$\geq .90$	$\geq .90$	$\geq .90$	$\leq .05$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in Hypothetical Model

(N=444)

Dependent	Predicto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 ²
SO	IMM	.13	.00	.13	.04
	SRA	.16	.00	.16	
SPA	IMM	.23	.02	.25	.09
	SO	.17	.00	.17	
	SRA	-	.03	.03	
EDS	IMM	.29	.09	.38	.30
	SRA	.15	.03	.18	
	SO	.11	.05	.16	
	SPA	.32	.00	.32	

IMM=influence of mass media; SRA=sex-role attitude; SO=self-objectification; SPA=social physical anxiety; EDS=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 자기 대상화는 사회적 체격 불안 변량의 9.0%를 설명하였다. 섭식장애증상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인 변인은 사회적 체격불안이었으나, 대중매체 영향력은 총 효과가 가장 컸다. 성역할 태도와 자기대상화도 섭식장애증상에 대해 직접, 간접 효과를 나타냈다. 이 네 변인들은 섭식장애증상 변량의 30.0%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화 이론이 한국 여대생의 섭식장애증상에 적용될 수 있고, 또 대상화 이론을 확장시키고자 성적 대상화의 지표로 사용한 대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 섭식장애증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대생들에 대한 대중매체 영향력(M=6.96, SD=4.42)은 여중고생을 조사한 Lee (2008)의 연구와 비교할 때, 중학생(M=5.34, SD=3.91)에 비해서는 높지만, 고등학생(M=6.92, SD=4.40)과는 비슷하였다. 이는 대중매체 영향력이 청소년집단, 특히 여고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Choi (2005)와 Jang (2004)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섭식장애가 아닌 섭식장애 관련 변인(신체 존중감, 신체불만족, 다이어트 등)에 대해 한 두 매체(특정 TV 프로그램이나 잡지)의 효과만을 다른 분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중매체 영향력은 경로모형에서 자기대상화, 사회적 체격불안, 섭식장애증상에 직접 효과를 보이고, 자기대상화와 사회적 체격불안을 통한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섭식장애증상에 대해 가장 큰 총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여고 T-26이 거식증상을 측정에서 대점에서, Lee (2009)의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중매체 영향력이 거식증상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것과 일치하지만, Morry와 Staska (2001)의 연구에서 미용 잡지노출이 섭식장애증상에 직접 영향이 없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Morry와 Staska (2001)와 본 연구에서 다른 대중매체의 특성 차이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 섭식장애증상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매체마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자기대상화의 선행변인으로 섭식장애에 대한 대상화이론에 포함될 경우 이론의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보인다.

성역할 태도는 성역할 정체성, 성역할 지향성, 성역할 채택, 성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섭식장애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어 온 개념은 성역할 정체성인데(Murnen & Smolak, 1997), 이 개념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대부분 특정성별에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성격적 특성을 측정한다(Gerber, 2005). Gerber (2005), Murnen과 Smolak (1997)은 여성의 성격적 특성이 섭식장애증상과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으므로, 현대사회 여성들의 변화된 성역할과 섭식장애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역할과 함께 직장에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현대 여성의 성역할 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역할 태도점수(M=31.57, SD=10.72)는 25년 전 Jeong (1983)의 36세 이상 여성의 태도점수(M=54.64, SD=17.25)보다 훨씬 낮았다. 여대생들의 성역할 태도는 성별에 고정된 가정과 직장 역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아서, 현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경로모형에서 여대생들의 성역할 태도는 섭식장애증상과 자기대상화에 직접 효과를 가지며, 또 섭식장애증상에 대해서는 자기대상화와 사회적 체격불안을 거치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성역할 태도가 성적 대상화의 지표로서 자기대상화의 선행요인일 수 있으며, 또 이 변인 포함됨으로써 대상화이론으로 섭식장애증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대생들은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섭식장애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페미니스트 의식이 높은 여성은 자신이 성적으로 대상화 된다고 지각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자의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고 습관적으로 신체감시를 하기보다 성적 대상화의 유해한 효과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Augustus-Horvath & Tylka, 2009)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런 주장은 성평등 의식 강화가 섭식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대상화 정도($M=-5.26$, $SD=9.03$)는 대상자들이 신체적 외모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대상 여대생의 자기대상화는 Calogero (2009)의 영국여대생($M=4.63$, $SD=12.70$), Calogero (2004)의 미국여대생 연구에서의 통제군($M=-0.50$, $SD=17.15$), Morry와 Staska (2001)의 캐나다 여대생($M=-0.26$, $SD=14.35$)보다 훨씬 낮아, 연구대상 여대생들이 서구의 여대생보다 신체적 외모보다 능력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한국 여성들이 외모에 치중한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를 반증한다기보다, 자기대상화 도구에서 측정하는 외모가 얼굴이 아닌 신체 부분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자기대상화에 대해 Tiggemann과 Lynch(2001)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여성들에서 가장 높고 40대와 50대에 저하하기 시작해서 60대 이후에는 가장 크게 저하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대상화 정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Frerickson과 Roberts(1997)가 성적 대상화가 여성의 생식 가능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후 다양한 연령군에서 자기대상화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체격불안은 어떤 사람에서 신체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적인 평가가 예상되거나 혹은 실제로 그런 평가가 있을 때 발생하는 불안이다(Hart et al, 1989). 대상 여대생들의 사회적 체격불안($M=38.67$, $SD=7.20$)은 Calogero (2004)의 미국여대생 통제군($M=37.18$, $SD=11.38$)과 유사하며, 또 Lee (2008)의 연구에서 여중생($M=37.44$, $SD=7.44$)과 유사하지만, 여고생($M=40.56$, $SD=7.32$)보다는 낮았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체격불안의 변화는 여성이 제2차 성징 발현과 더불어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상적인 여

성의 신체를 인식하면서, 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그러한 이상적 기준과 자신의 신체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때 낮아진다(Hart et al., 1989). 이런 설명에 비추어보았을 때 한국 여대생들의 사회적 체격불안이 선행연구(Lee, 2008)의 여고생보다 낮은 것은 의외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체격불안이 섭식장애증상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 변인이 포함된 반복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EAT-26에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섭식장애증상(도구의 원래 채점방식에서 20점 이상)을 보인 여대생은 51명(11.5%)이었다. 이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Choi와 Cheon(2007)의 결과(12.6%)보다 약간 낮지만, Lee 등(2003)의 5.9%, Sohng과 Park (2003, cited in Choi & Cheon, 2007)의 3.4%라는 보고보다는 훨씬 높다. 또 다인종이 포함된 미국 여대생들에 대한 Gerber (2005)의 보고(9.0%)보다 높아서, 한국에서 여대생의 섭식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와 같은 EAT-26의 채점방식을 사용한 Moradi 등(2005)의 미국 여대생($M=63.70$, $SD=19.76$), Augustus-Horvath와 Tylka (2009)의 18-24세 미국여성($M=64.22$, $SD=19.50$)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섭식장애증상 점수($M=64.32$, $SD=15.79$)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한국 여대생들의 섭식장애증상을 보이는 정도가 서구의 젊은 여성과 유사하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대상화는 사회적 체격불안과 섭식장애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또 사회적 체격불안을 통한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상화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Fredrickson & Roberts, 1997; Noll & Fredrickson, 1998; Slater & Tiggemann, 2002; Tiggemann & Slater, 2001)과 일치한다. 하지만 Calogero (2009)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의 자기대상화가 섭식장애증상에 직접 효과가 없었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Augustus-Horvath와 Tylka (2009)는 미국여성 대상연구에서 18-24세 집단과 25세 이상 집단의 경로모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대상화 이론의 경로구조가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의 경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연령의 다른 집단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 집단들에 대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화 이론에서 여성의 생식능력 유무나 신체적 외모변화와 관련하여 성적 대상화나 자기대상화 경험이 달라 질 수 있

을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연령에 따른 변인의 차이와 경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자가 보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섭식장애증상과 대중매체 영향력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기억 회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자기대상화의 경우, 한국 문화에서는 여대생이 누가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적 매력'을 다른 신체적 속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 본 연구의 표본이 소도시에 사는 여대생들이었고, 또 무작위로 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결과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의 섭식장애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이 대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구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대상화와 사회적 체격불안은 섭식장애증상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자기대상화는 사회적 체격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섭식장애증상에 영향을 주었다. 또 본 연구에서 자기대상화의 선행변인으로 선정된 대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를 성적 대상화의 지표변인으로 포함하는 것이 대상화 이론에 근거한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영향력은 자기대상화, 사회적 체격불안, 섭식장애증상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또 자기대상화와 사회적 체격불안을 통해 섭식장애증상에 간접 효과도 보였다. 대중매체 영향력은 대상화이론의 원래 변인들보다 총 효과가 더 컸다. 성역할 태도는 자기대상화와 섭식장애증상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사회적 체격불안에 대해서는 간접효과만 있었다. 위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섭식장애를 대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에 대상화 이론이 주로 적용되는 여대생 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함한다면, 섭식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소녀들과 더 나이든 여성에서 섭식장애증상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경로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대상화 이론의 개념들 외에 신체감시나 신체수치심 등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본 연구에서 자기대상화의 선행변인으로 대중매체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를 포함한 것처럼, 다양한 다른 변인(예,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재화 등)을 추가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다수의 변인을 포함하면, 연구가 복잡해지겠지만, 섭식장애에 대한 간호중재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변인을 선정한 연구는 간호의 수월성을 재고하게 할 것이다.

셋째, 건강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매체비판 능력, 특히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메시지와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외에서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의 패션모델을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모델의 사진을 왜곡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안(예, 포토샵 금지)에 대해, 여성건강간호계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섭식장애증상이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것은 성평등의식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교육에서 성적 대상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성평등의식과 여성건강, 특히 섭식장애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ugustus-Horvath, C. L., & Tylka, T. L. (2009). A test and examinat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predicts disordered eating: Does women's age mat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53-265.
- Calogero, R. M. (2004).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The effect of the male gaze on appearance concerns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16-21.
- Calogero, R. M. (2009). Objectification processes and disordered eating in british women and me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3), 394-402.
- Carmins, E., & Mclver, J. (1981). *Analyzing models with unobserved models: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Beverly Hills, CA: Sage.
- Choi, M. S., & Cheon, S. H. (2007).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body shape satisfaction, anger and eating attitudes in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4), 327-335.
- Choi, Y. J. (2005). *A study of women's body dissatisfaction due to exposure to mass media: Focusing on body dissatisfaction, diet and the approval with plastic surgery due to exposure to TV and magazin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National University, Seoul.
- Fredrickson, B. L.,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redrickson, B. L., Roberts, T., Noll, S. M., Quinn, D. M., & Twenge, J. M. (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69-284.
- Gerber, A. F. (2005). *Trauma, culture and disordered ea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Hahn, O. S., Yoo, H. J., Kim, C. Y., Lee, C., Min, B. K., & Park, I. H. (1990). The epidemiolog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eating disord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15(4), 270-287.
- Hart, E. A., Leary, M. R., & Rejeski, W. J. (1989). The measurement of social physique anxiet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1, 94-104.
- Jang, H. S. (2004). *The effect of mass media on body perception and state esteem of body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eong, J. H. (1983). *A study on sex role attitude of daughter by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E. J. (2008). Factors relating to social physique anxiety in adolescent girl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2), 93-103.
- Lee, E. J. (2009). Disordered eating symptoms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adolescent women. *Studies on Korean Youth*, 20(2), 307-326.
- Lee, K. H., Kim, S. Y., Chun, K. J., & Han, S.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 and self-esteem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4), 390-399.
- Lee, S. S.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universit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V. (2005). Role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0-428.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3(4), 269-279.
- Murnen, S. H., & Smolak, L. (1997). Feminity, masculinity, and disordered eating: A meta-analytic re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2, 231-242.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t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623-636.
- Shin, I. Y. (1997). *A process that mass-media affects dieting and eating disorder of young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Slater, A., & Tiggemann, M. (2002).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adolescent girls. *Sex Roles*, 46(9/10), 343-349.
- Son, E. J. (2006). The influence of objectification experiences on women's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1(4), 399-417.
- Tiggemann, M., & Lynch, J. E. (2001). Body image across the life span in adult wom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43-253.
- Tiggemann, M., & Slater, A. (2001). A test of objectification in former dancers and non-danc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57-64.